

Contact: Yuko Tanaka, +81 (0)3-5411-3693 or yutanaka@russell.com
Soojin Keum, +82 (0)2-6137-6900 or skeum@russell.com

19F, Two IFC, 10 Gukjegeumyung-ro,
Yeongdeungpo-gu, SEOUL 150-945,
KOREA
www.russell.com/kr

러셀 글로벌 지수 한국종목 69 개 추가

한국,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신규 추가종목 수 기준으로 3 위 차지

2013년 7월 4일 (서울) -글로벌 주식 시장 벤치마크인 러셀 글로벌 지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진행되는 러셀 인베스트먼트의 지수 재구성 (reconstitution) 결과 올해는 69 개의 한국 종목이 추가되었다. 이로써 러셀 글로벌 지수는 총 374 개의 한국 종목을 포함하게 되었으며 시가총액은 대략 1.4 조 달러에 이른다. 이는 작년 시가총액 1.2 조 달러 대비 다소 증가한 수치이며, 한국은 러셀 글로벌 지수 내에서 시가총액 기준 10 위를 차지하는 국가가 되었다.

러셀 인베스트먼트의 지수 리서치 및 혁신 부서의 로프 아가서 (Rolf Agather) 글로벌 총괄 임원은 “매년 진행되는 러셀 지수 재구성 과정은 러셀의 지수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러셀은 고객들에게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지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지수의 비중을 조정한다. 이러한 지수 재구성 작업은 멀티 에셋 투자자들이 자산군의 성과를 더 세밀히 측정하고 투자기회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객관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이루어 진다”고 말했다.

글로벌 지수에 추가된 종목은 [러셀 지수 재구성 웹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하다.

2013년 러셀 글로벌 지수 재구성 후 한국 종목들과 연관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10 대 시장이 되었다.
- 당해 지수 조정작업에서 69 개의 한국기업 추가는 재작년 36 개, 작년 53 개 종목 추가에 비하여 주목할 만한 증가이다.
- 2012년 대비 가장 변화가 큰 섹터는 테크놀로지 섹터 (30.9%에서 35.7%로 증가)와 내구생산재 섹터 (12.5%에서 10.4%로 감소)이다.
- 러셀 글로벌 지수 가운데 한국 종목들의 섹터별 비중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테크놀로지 (35.7%), 임의 소비재(18.9%), 금융 (13.9%), 내구생산재 (10.4%), 원자재 및 가공 (9.6%), 필수 소비재 (4.6%), 유틸리티 (2.9%), 에너지 (2.1%), 헬스케어 (1.9%)

러셀 지수를 벤치마크로 운용하고 있는 자산이 세계적으로 총 4.1 조 달러에 이르고 6 천억 달러가 넘는 자산이 러셀지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금융상품에 투자되는 등, 러셀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주식시장 지수의 선도자이므로 러셀의 지수 재구성 과정은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약 30년전인 1984년 최초의 시장 지수를 도입한 이래 러셀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지수 시장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지켜왔으며, 러셀 지수는 매일 80 여개국의 10,000 종목들을 커버하는 700,000 개 이상의 벤치마크를 산정한다.

러셀 인베스트먼트 소개

러셀 인베스트먼트(이하 러셀)는 액티브 운용전략으로 멀티자산 포트폴리오 운용 및 자문, 투자, 투자 이행을 포함한 투자관련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소수의 글로벌 자산운용사 중 하나이다. 러셀은 기관 투자자, 재무 상담사, 개인투자자 등을 위해 자본시장에 대한 통찰력, 운용사 선정, 포트폴리오 구축 및 투자 이행, 지수 제공 등 고객이 추구하는 투자목표 달성을 위하여 핵심 역량을 제공한다.

러셀의 총 수탁고 규모는 1,730 억 달러이며 (2013 년 3 월 31 일 기준) 전 세계적으로 약 2,500 개의 기관투자자, 독립 판매 채널 협력사 및 개인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한 세계 투자자들에게 투자자문을 제공하고 있기도 한 러셀은 자문 대상 자산 규모가 약 2.6 조 달러에 이른다 (2012 년 12 월 31 일 기준). 지난 40 년 동안 매니저 리서치 및 운용사 선정 서비스를 제공해 온 러셀은 매년 전 세계 2,200 개 이상의 운용사와 회의를 수행했으며, 투자 이행 서비스 사업부문에서는 2012 년 1.4 조 달러의 거래규모를 기록했다. 러셀은 전 세계 투자 가능한 시장의 98%에 달하는 80 개국의 10,000 개 이상의 종목을 커버하는 700,000 개 이상의 벤치마크를 매일 산정하고 있다. 러셀 지수를 벤치마크로 하는 자산규모는 약 4.1 조 달러이다 (2012 년 12 월 31 일 기준).

러셀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뉴욕, 런던, 파리, 암스테르담, 시드니, 멜버른, 오克兰드, 싱가포르, 서울, 도쿄, 토론토, 시카고, 샌디에고, 밀워키와 에딘버러 등 전 세계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고객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러셀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russell.com 를 방문하거나 @Russell_News 를 팔로우한다면 확인이 가능하다.

###

Russell Investments Korea Limited (Registration no. 110111-4653047) holds a Discretionary Investment Management and an Investment Advisory Licence issu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n Korea.

The information, analyses and opinions set forth herein are intended to serve a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by any individual or entity as advice or recommendations specific to that individual entity. Anyone using this material should consult with their own attorney, accountant, financial or tax adviser or consultants on whom they rely for investment advice specific to their own circumstances.

This material is not an offer, solicitation or recommendation to purchase any security. These views are subject to change at any time based upon market or other conditions and are current as of the date at the top of the page.

Nothing contained in this material is intended to constitute legal, tax, securities, or investment advice, nor an opinion regarding the appropriateness of any investment, nor a solicitation of any type. The general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should not be acted upon without obtaining specific legal, tax, and investment advice from a licensed professional.

Copyright © Russell Investments 2013.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is proprietary and may not be reproduced, transferred, or distributed in any form without prior written permission from Russell Investments. It is deliver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y.

Russell Investments Korea Limited is located at 19F Two IFC, 10 Gukjegeumyung-ro, Yougdeungpo-gu, Seoul, Korea 150-945. You can contact us by telephone on +82-2-6137-6900.

Russell Investment Group is a Washington, USA corporation, which operates through subsidiaries worldwide, including Russell Investments, and is a subsidiary of The Northwestern Mutual Life Insurance Company. Russell Investments is the owner of the trademarks, service marks and copyrights related to its respective indexes. Russell's indexes are unmanaged and cannot be invested in directly.

Nothing contained in this material is intended to constitute legal, tax, securities, or investment advice, nor an opinion regarding the appropriateness of any investment, nor a solicitation of any type. The general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should not be acted upon without obtaining specific legal, tax, and investment advice from a licensed professional.